

●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5개국 미술관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보인다. 사진은 프레데릭 와이즈먼 '내셔널 갤러리'(위)와 사라 보스 '화이트볼스 온 월스'(오른쪽) 스틸샷



천만관객 '파묘' 속 ACC
이색 촬영지로 '각광'

공간 특수성 등 영화·예능 등장

장기 흥행 중인 영화 '파묘' 속 일부 장면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최근 영화 '파묘'가 올해 첫 '천만 영화'로 등극한 가운데 ACC 내부에서도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배우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주연의 영화 '파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엮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파묘' 제작진은 2022년 2월 ACC 문화창조원 전시관과 문화정보원 도서관을 있는 지하 2층 복도를 미국 병원의 세트장으로 꾸미고,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이 목숨이 위태로운 아기를 만나러 미국 병원을 방문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영화에서는 도입부에 병원 장면이 상영된다.

ACC는 현재 영화 '파묘' 촬영지를 소개할 안내 간판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인증샷을 위한 공간도 준비 중이다.

영화 '파묘' 외에도 ACC는 실제 다양한 영화, 드라마, 예능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2017년 SBS 예능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시작으로 영화 '상류사회', '공작', '더박스', 웹드라마 '나의 로켓', '택배기사', SBS 예능 '런닝맨', '오! 마이 웨딩', 단편 영화 '목화송 피는 날' 등 10여 편의 촬영을 지원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가 가진 공간 특수성 때문에 방송, 영화, 웹드라마, OT 등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ACC 내 이색 촬영지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공간 활성화 마케팅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문화전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동시대 '미술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13-28일 전남도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협약 순회 상영 영국·이스라엘 등 5개국 미술관 취재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미술관의 실상을 알아보고, 동시대 미술관에서 다루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펼쳐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5개국 미술관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보인다. 이번 상영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약을 통해 마련된 필름앤비디오 순회상영 프로그램이다.

5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시와 소장품 관리, 보존복원, 해설 등 미술관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보를 들려준다.

먼저 영화로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내셔널 갤러리'(2014·181분)는 미국 영화

감독 프레데릭 와이즈먼이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12주 가량 체류하며 촬영한 작품이다. 작품을 복원하고 전시를 해설하는 미술관의 다양한 일상을 세세하게 보여주며,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최한 세계적 거장의 전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술관 내부의 복합적 이해관계를 다룬 '미술관'(2017·74분)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란 탈 감독이 예루살렘 국립이스라엘미술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 작업이다.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혼란을 겪는 미술관 속 인물들의 상황을 보여주며,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또 해소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살펴볼 수 있다.

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다룬 '라익스 미술관의 새 단장 - 더 필름'(2014·90분)은 우키 호헌데이크 감독의 대표작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증축 과정을 10년간 추적한 작품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한 미술관 철거와 복원, 소장품 구입, 예산 배정 협상 등의 뒷이야기를 선보인다. 예술이라는 공공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진 미술관 관계자들의 치열한 모습이 담겨있다.

'화이트 볼스 온 월스'(2021·90분)는 사라 보스 감독이 암스테르담의 스테델리크미술관에서 시행한 '포용성과 다양성' 정책을 다룬 작품이다. 라인 볼프 관장과 직원들이 새로운 미술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채용에 다양성을 도입하며, 유색 인종 작가의 작품 구입을 증진하는 1년 반의 과정을 기록했다. 영화 제목은 1995년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게릴라 걸즈가 스테델리크미술관 앞에서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사와 전시를 비판하며 외친 'White Balls on W

alls'라는 구호에서 빌려왔다.

마지막으로 전시 감상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다룬 일본 가와우치 아리오 감독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 예술을 보러 가다'(2022·107분)가 상영된다. 시각장애인 미술애호가 시라토리 겐지의 전시 감상을 동행하며 촬영한 작품이다. 라토리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감상법을 개발해 20여 년째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이어오고 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의 사례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회 상영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상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760-3242-3. /최명진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2023 문체부 우수기관 선정

전시·교육 등 실적부문 만점 '쾌거'

국립광주박물관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평가다.

국립광주박물관을 포함한 전국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유일하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개 평가항목 전체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전시 분야에서는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2020)',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2021)', '고려음(2021)', '여수(2022)' 등 박물관 특성과 관람객을 고려한 다양한 특별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고 이건희 회장 기증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대상별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함께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연계 교육도 이번 선정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교구·영상 개발 등 비대면 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광주박물관 전경.

비스를 병행해 언제 어디서나 박물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놀이터 'MOP(Museum On Play)'를 구축해 박물관 온라인 진출의 성공 사례로 호평 받았다. /최명진 기자

서구공공도서관 '책길 살롱'

오늘부터 총 10회 인문 독서토론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3일부터 6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성인 대상 인문 독서토론 프로그램 '책길 살롱'을 선보인다.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책길 살롱'은 ▲4월3일 '토의와 토론'을 시작으로 ▲4월17일 '토론의 방법과 절차' ▲4월24일 '자기 찾기' 등 매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독서와 매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찾는 과정 속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